



토트넘의 손흥민(가운데)이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EPA=연합뉴스

# 손흥민 토트넘서 첫 우승 '예약'

‘캡틴’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리그컵(카라바오컵) 준결승 첫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EPL) 선두팀 리버풀을 잡고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토트넘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41분 루카스 베리발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2007-2008시즌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각종 대회를 통틀어 마지막 우승인 토트넘은 17년 만의 트로피를 향해 전진을 이어 나갔다.

지난 시즌을 비롯해 리그컵에서 10차례 우승해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리버풀은 원정에서 일격을 당해 다음달 7일 홈에서 뒤집기를 노린다.



카라바오컵 준결 1차전서 리버풀 꺾어... 결승행 청신호 팀은 17년 만의 트로피 도전... 양민혁 첫 교체명단 올라

최근 구단의 계약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과의 동행이 확정된 주장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에 선발 출전해 도미니 솔란케, 데얀 클루세브스키와 공격진을 이뤄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시즌 EPL에서 5골 6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리그컵에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8강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노렸으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한 채 후반 27분 티모 베르너로 교체됐다.

K리그1 강원FC에서 지난해 맹활약을 펼치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어 화제를 모은 2006년생 공격수 양민혁은 토트넘 입단 이후 처음으로 교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과 계약하고 이달 합류 예정이었던 양민혁은 토트넘의 요청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가세해 팀에 적응해 오다가 처음으로 벤치에 앉았다.

EPL에선 리버풀이 선두(승점 46)를 달리고 있고, 토트넘은 12위(승점 24)에 머물러 있으나 컵대회에선 달랐다.

선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벳랑쿠르가 경기 초반 부상으로 뛰지 못하게 되면서 브레넌 존슨으로 교체되는 변수 속에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방전을 벌인 끝에 후반 41분 터진 한 방으로 승리를 따냈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크로스를 솔란케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파고들며 때내 중앙으로 연결했고, 베리발이 침착하게 오

른발로 마무리했다.

솔란케는 앞선 후반 31분 먼저 골 그물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으로 오프사이드가 지적돼 골이 취소된 아쉬움을 결승골 도움으로 털어냈다.

전반 6분께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머리로 공을 받으려 몸을 날렸다가 그대로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해 실려 나갔던 벳랑쿠르는 병명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가 알기로 그는 의식이 있다.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있었다”면서 “각정스럽지만,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소셜 미디어 메시지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자랑스럽고, 응원도 엄청났다. 할 일이 남았지만 2차전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은 벳랑쿠르와 함께 한다”며 쾌유를 빌었다. 스카이텔레비전, 연합뉴스



# FA 서건창, KIA에 잔류

1+1년 최대 5억 재계약 이용찬 등 셋만 FA 미계약

자유계약선수(FA) 서건창(35·사진)이 원소속 팀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계약했다.

KIA는 9일 “서건창과 계약 기간 1+1년에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4000만 원, 옵션 1억6000만 원 등 총액 5억 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2026년도 계약은 올해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 연장된다.

서건창은 “다시 한번 고향 팀에서 뛰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고참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건창은 2024시즌을 앞두고 KIA로 이적해 94경기에서 타율 0.310, 26타점, 40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특히 2024시즌 KIA의 약점으로 꼽히던 1루를 이우성, 변우혁과 함께 책임지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KIA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서건창을 폭넓게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줄 거다”고 전했다.

서건창이 계약하면서 FA 시장에 남은 선수는 3명으로 줄었다.

NC 다이노스에서 뛰던 베테랑 투수 이용찬(B등급)과 외야수 김성욱(C등급),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문성현(C등급)은 아직 팀을 찾지 못했다.

# 양민혁, 케인이 썼던 18번 달고 뛴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일원이 된 2006년생 공격수 양민혁이 등번호 18번을 달고 뛴다.

양민혁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리그컵(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강원FC에서 지난해 맹활약을 펼치며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양민혁은 2024시즌 중인 지난해 7월 토트넘 입단이 확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입단 발표 당시엔 이달 토트넘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양민혁은 토트넘 측 요청에 예정보다 이른 지난해 중순 영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적응을 시작했고 이날 처음으로 공식전 벤치에 앉았다.

토트넘이 이날 교체 카드를 2장만 사용한 가운데 양민혁은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으나 데뷔 기대감을 키웠다. 토트넘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min-



양민혁의 토트넘 유니폼. 토트넘 인스타그램 캡처

hyeok’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18번’이 새겨진 양민혁의 유니폼 사진을 올려 첫 명단 등록을 축하했다.

18번은 세계적인 골잡이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2014-2015시즌 토트넘에서 사용했던 번호다. 이후 케인은 10번으로 번호를 바꿨다.

한국 국가대표팀 전 감독인 윌트겐 클린스만(독일)도 1990년대에 토트넘에서 뛰며 18번을 단 적이 있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